



# 히브리산파들의 저항과 “시편 언어”의 친연성(親緣性)\*

- 상호텍스트성으로 본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시편 34편 -

이일레(서울신대)

## 1. 들어가는 말

흑인 노예제도(Neger-Sklaverei)와 홀로코스트(Holocoust)와 같은 폭력으로 뒤엉킨 역사의 현장에서 여성은 어떻게 저항하며 끝내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고난당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삶을 서장으로 시작한다(출 1:15-22).<sup>1)</sup> 이집트 파라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6S1A5B5A07919922).

1) Brevard S. Childs는 그의 주석서, *The Book of Exod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5), 17에서 출애굽기 1장 15절의 ‘히브리 산파’(הֵבְרֵיטוֹת הַמִּלְּוּחִים)를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히브리 산파’(Hebrew midwives)와 ‘히브리인들의 산파’(midwives of the Hebrews). 그러므로 ‘הֵבְרֵיטוֹת הַמִּלְּוּחִים’ 표현과 관련하여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가 이집트인이었을까? 히브리인이었을까?”라는 내용이 많은 연구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칠십인역과 불가타 그리고 몇 권의 유대전통의 주석서는 히브리산파를 이집트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Göran Larsson, *Bound for freedom: the*

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자행한 폭력은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는 살인 명령이다.<sup>2)</sup> 파라오의 살인 명령 앞에서 인간은 자칫 자신들의 의식을 기형화시켜 사회적 구조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 내고, 이를 자기 보존의 수단이란 재앙으로 첨예화할 수 있다. 흑인 노예제도의 현장에서도 홀로코스트의 비극적인 자리에서도 정의의 저항의 당위성을 상실하고, 자기 보존 논리의 맹목성으로 사람들은 살인과 폭력을 자행했다.<sup>3)</sup>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비극은 자행되고 있다. 사회 권력 구조 속에서 작동되는 지배원리와 형식에 저항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개인의 강박적 정체성과 이들 배후를 조절하는 폭력적 근본 구조에 저항할 수 있

---

*Book of Exodu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Peabody, MA: Hendrickson, 1999), 13; Scott M. Langston, *Exodus through the centuries* (Maiden, MA, Oxford, UK, and Carlton, Australia: Blackwell Publishing, 2006), 19 참조. 그러나 탈굴(Targum)은 그들을 히브리인으로 주장한다. Cornelis Houtman, *Exodu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I.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I: Kampen: Kok Publishing, 1993), 251* 참조. 그리고 탈무드(Talmud)는 히브리산파를 유대교인(Jewis)으로 기록한다. 탈무드전승(Targum Neofiti I와 Targum Pseudo-Jonathan을 따른다)은 십브라(Shiphrah)를 모세의 어머니(Jocheved)으로 부아(Puah)를 미리암(Miriam)과 동일시한다. Scott M. Langston, *Exodus through the centuries* (Maiden, MA, Oxford, UK, and Carlton, Australia: Blackwell Publishing, 2006), 18-19 참조.

이집트는 전체군주가 다스리던 국가였다. 그리고 모든 노동은 노예로 예측되어 있는 자들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특별히 이집트 북동쪽에 위치한 아시아 변방지역에서 일정한 정착지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흘러 들어왔다. 또한 1200년경 니일강 델타 동쪽 국경으로 에돔의 유목민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이집트 토착민들과 구별되었다. 이와 같이 이집트 토착민들이 가진 권리로부터 구별되는 사람들을 흔히 '히브리인'(עִבְרִי)이라고 불렀다(기원전 2세기 고대근동). 마틴 노트, 『출애굽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25-28 참조.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성서 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에서의 체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히브리인'이라고 불린다. '히브리인'은 억압받는 이스라엘인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전체에서 이집트 토착민들과 구별되는 노예로 예측되어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인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애굽인들이 쉽게 알아듣던 다소 조롱 섞인 칭호로만 사용되었다. 출애굽기 1장 15-22절에서 '히브리 산파'가 이스라엘이든 이집트인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시점에서 파라오의 폭력에 저항하며 생명을 지키는 자였다는 점이다. 참조 Freedman; Willoughby, "עִבְרִי" *Th WAT V* (1986), 1039-1056.

- 2) L. Schottroff, S. Schroer, M-T. Wacker, *Feministische Exegese: Forschungserträge zur Bibel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152.
- 3) Josef Scharbert, *Exodus* (Echter Verlag, 1999), 5; 필립 뮐러, 『아우슈비츠는 불타는가?』(김인숙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7P;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이현경 역), (경기도: 돌베개 2012), 11P; 프리모 레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이소영 역), (경기도: 돌베개 2014), 153; 하워드 진·앤서니 아노브, 『미국 민중사를 만든 목소리들』(황혜성 역)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11), 77.

는 요인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의 살인 명령에 저항한다. 이들에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자기 보존 욕구와 악에 대한 저항의 당위성 사이에 작동하는 갈등의 시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저항의 과정이 히브리산파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는 자신들의 운명에 관하여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도로테 쉴레는 그의 연구서 『고난』에서 ‘고난의 단계들(Phase)’을 설명하고 있다.<sup>4)</sup> 고난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은 고난의 상태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는 점차적인 단계에 집중해야 한다.<sup>5)</sup> 맹목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위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고난의 상황에서(고난의 단계 I) 고난은 논의될 수 있고,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하다는 통찰은 고난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sup>6)</sup> 여기서 억압되어 왔던 고통이 언어를 통해서 분출된다. 순전히 이성적 언어만으로 불가능하다. 침묵하는 고통, 동물적인 울부짖음, 혹은 언어의 상실의 단계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시편의 언어”(psalmische Sprache)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나타낼 수 있다(고난의 단계 II).<sup>7)</sup> “시편의 언어”는 고난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난당하는 자를 변화 시킨다(고난의 단계 III).<sup>8)</sup> 출애굽기 1장 15-22절은 산파들의 고난의 단계들에 관하여 선명하게 예증하고 있을까? 출애굽기 1장 15-22절의 산파들의 저항에서 우리는 그들의 “고난의 언어”들을 시편에서 추적할 수 있을까?

시편 34편은 찬양, 감사의 동기, 교육적 애가, 인과응보 사상 등의 소

4) Dorothee Sölle, *Leiden* (Stuttgart: Kreuz Verlag, 1984), 91.

5) 참조. 이일레, “고난 받는 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관계성”, 『구약논단』 제 62집 (2016.12), 103; 이일레는 그의 논문에서 고난 받는 자의 고난 극복과 관련하여 고난 받는 자의 사회적 관계성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6) Dorothee Sölle, 원글.

7) Dorothee Sölle, 원글.

8) Dorothee Sölle, 원글.

재 속에 시인의 신학적 주제가 담겨있다.<sup>9)</sup> 실존적 생존의 위협 속에 고난을 경험한 시인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0)</sup>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편 34편의 전체적인 톤으로 작용하는 주제가 출애굽기 1장 15-22절에 살아 숨 쉬는 신학적 주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두 본문 상호간에 끊임없는 유기적 관계에 의해 작동되는 해석학적 형태에 집중한다. 본 연구는 시편 34편과 출애굽기 1장 15-22절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제재를 파악하고 구성을 분석하여 상호간의 대화를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출애굽기 1장 히브리 산파의 저항의 신학적 의미를 밝힌다.

## 2. 히브리산파들의 저항과 “시편 언어”의 친연성(親緣性)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출애굽기 1장 15-22절을 시편 34편과 함께 읽는다. 출애굽기 1장 15-22절에서 히브리 산파의 저항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소재가 시편 34편의 전체주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출발점으로 두 본문을 상호텍스트성으로 풀어 나아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본문 상호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시편을 해석한 호스펠트(Hossfeld)와 쟁어는(Zenger)의 정경비평적 접근과는 구별된다. 호스펠트와 쟁어는 그들의 주석서에서 시편을 정경 비평적 접근으로 해석하며,<sup>11)</sup> 이들은 시편 전체 150편에서 시편 각각의 내부에 살아 숨 쉬는 신학적 표현들을 개별적 제한적 표현에서 반복적 일반적 표현의 지

9) H.-J. Kraus, *Psalmen I. Psalmen 1-59*, BK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sup>5</sup>1978), 422; 함성국, 「시편해석」 451; Rolf A. Jacobson, 'Many are Saying': *The Function of Direct Discourse in the Hebrew Psalter* (Bloomsbury: T&T Clark International, 2004), 84. 연구사는 시편 34편에 관하여 인과응보의 이론이 전체적인 톤이라고 이해한다: 참조 H.-J. Kraus, *위글*, 422; A. 바이저, 「시편 (I)」 (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97.

10) H.-J. Kraus, *위글*, 422.

11) F.-L. Hossfeld/E. Zenger, *Psalmen I* (Die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1993), 24.

평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시편이 다른 시편을 해석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시편 상호간에 끊임없는 유기적 관계에 의해 작동되는 해석학적 형태에 주목한다. 그들이 전체적으로 공시적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으며 각각의 시편들이 성장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호스펠트와 쟁어는 공시적 통시적 통합을 요청하면서 시편 전체의 구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편 해석과 관련하여 통합적 이해의 장을 시편자체 내로 제한·규정하고 있는 정경 비평적 접근을 넘어서며,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시편을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up>12)</sup>

### 1) 히브리산파들의 저항의 언어(출 1:15-22)

접속사 ‘그리고’(ו)로 시작하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창세기 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해밀톤(Victor P. Hamilton)은 그의 연구서에서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46장 8-27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계보(genealogy)로 소급해 올라간다고 이해한다.<sup>13)</sup> 요세프 샤베르트(Josef Scharbert)는 그의 주석서에서 출애굽기 1장이 제사장 문서(1-5.7.13f), 야웨스트 문서(6.8-12.22) 그리고 엘로히스트 문서(15-19)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출애굽기 1장 1-5절은 제사장(P)문서로서 창세기 50장에서 끝나는 야곱의 계보와 출애굽기 1장 7절과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민족의 역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제사장 문서: 1-5.7.13f) 이해한다.<sup>14)</sup>

여기 야웨스트 문서가 시작되는 6절은 창세기 50장 14절과 연결

---

12) M. Millard, *Die Komposition des Psalters. Ein formgeschichtlicher Ansatz* (FAT 9; Tübingen: Mohr, 1994), 122: 밀라드의 경우 공시적 통시적 통합을 요청하면서 시편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읽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3) Victor P. Hamilton, *Exodu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3.

14) Josef Scharbert, *Exodus* (Würzburg: Echter Verlag, 1989), 13.

되어 족장들의 이야기를 민족사와 연결시킨다(야웨스트 문서: 6.8-12.22). 이어서 야웨스트는 8절에서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의 등장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암시한다. 제사장 문서(1-5.7.13f)와 야웨스트 문서(6.8-12.22)가 각각 가족의 계보에서 민족 역사에로의 전환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엘로히스트 문서에 속하는 출애굽기 1장 15-19절은 신학적 주제, 민족의 역사와 관련하여 히브리 산파들의 저항을 다룬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서장 중심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히브리 산파들의 삶을 만날 수 있다(출1:15-22). 이집트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들(לְמִילֵרֵת הַעֲבֵרִיָּת) 라메알레도트 하이브리오트)에게 살인을 명령(וַיִּמְצֹאן) 바하밀텐)한다. 16-17절은 설정된 인물 파라오와 산파들의 행위를 통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강렬하게 그리고 있다. 파라오는 죽음의 폭력을 행하는 자,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을 다루는 자로 서로 상처되어 나타남으로 독자에게 긴장감을 조성한다. 여기 ‘출산’(לָדָּ) 알라드)과 ‘죽음’(מוֹת) 무트)이란 단어의 극명한 대조는 바로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의 고통의 크기를 암시한다.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저항한다. 이들의 저항의 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16-17절에서 파라오의 명령과 그 명령의 불복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Phase)을 찾아낼 수 있을까?

출애굽기 서장은 산파들의 저항의 힘을 ‘하나님 경외’로 보고하고 있다(출 1:17,21). 17절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וַתִּירָאן הַמִּילֵרֵת אֶת־יְהוָה) 발티레나 하메알레도트 에트-하엘로힘)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엘로히스트는 15-20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표현, ‘엘로힘’과 ‘하나님 경외’(출 1:17,21)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볼프(Wolff, Vitality 73-74)는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 사상과 이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엘로히스트

기자의 전형적인 신학적 주제라고 말한다.<sup>15)</sup>

출애굽기 1장 15-22절의 히브리 산파들의 고난은 외적인 사회 현실과 관계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 지시와 명령 불복종이 팽배한 두 구조를 이루고 있다.<sup>16)</sup> 여기 태동되는 산파들의 저항은 파라오의 살인 명령을 보편화된 문제로 확대시켜 고난을 탈역사화하고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전락시킬 수 있는 냉소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상황이 인간에 의하여 변화되며, 상황의 변화가 인간의 행위 또는 인간의 자기 변화를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유기적 동시성은 “혁명적 실천”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히브리 산파들을 역사의 주체로 일어서게 하는 “혁명적 실천”은, 불의한 사회 구조에 타협하며 자신들의 의식을 기형화시켜 사회적 구조에 대한 복종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삼는 상황에 저항함으로써 가능했고 이를 위한 힘은 ‘하나님 경외’이었다. 파라오의 행위와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다.

또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경외’의 힘을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능력으로 입증한다. 산파들의 아이를 살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심히 강대하여진다(출 1:20). 파라오 계획의 실패를 의미한다. ‘생명을 죽이는 자’(מֹרְט מוֹט)의 실패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מֹשֶׁה מוֹשֵׁה, 알라드), 산파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생육과 번성과 강대하여짐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뿐 만 아니라 파라오로부터 보호하신다.<sup>17)</sup>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출 1:21). 여기 구조적인 악 앞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자기 보존 욕구

---

15) H. W. Wolff, *The Vitality of Old Testament Traditio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John Knox Press, 1982), 73-74.

16) Josef Scharbert, *룻*, 16.

17) Cornelis Houtman, *Exodu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I; Kampen: Kok Publishing, 1993)

와 악에 대한 저항의 당위성 사이에 작동하는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는 폭력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중요한 혁명적 역량으로 작동된다. 그뿐만 아니다.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는 파라오의 확대된 살인 명령에 노출되는 ‘모든’ 신민에게 규범적 길을 제시한다(출 1:22). 산파들에 의해서 촉진되어온 저항운동이 이집트 파라오의 폭력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경험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 끈고한 자들의 탄원과 교훈의 언어(시 34:1-22)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쓰인 시편 34편은 감사시편으로, 전체 구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1-10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시인은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청중을 초대한다. 두 번째 단락(11-22절)에서 시인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청중을 향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첫 번째 단락(1-10절)의 이야기를 중심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분석해보자. 첫 번째 단락의 문학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인이 공동체와 대화하고 있는 현상이다. 1-2[2-3]<sup>18)</sup>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인은 1절을 특별히 단수형태 코호타티브, ‘송축하리라’로 시작한다(אֲבָרְכָה אֱלֹהִים אֲבָרָכָה). 코호타티브 형식을 통하여 그의 찬양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다. 2절에 나타나는 시제는 미완료가 지배적이다. 시인은 미완료 시제를 통하여, 그의 찬양(לְהַלְלֵהוּ 티트할렐)을 끈고한 자들(עֲבָדָיו 아나빔)이 듣고 기뻐할 것(יִשְׂמְחוּ 베이스마후)을 소망한다. 그의 관심이 그의 찬양의 청중, 끈고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1-10절) 도입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읽어낼 수 있을까? 시인과 그의 청중, 끈고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으로 다양한 인칭변

18) 본 논문에서 장절 표기는 한글 성경의 것을 먼저 적고 히브리 성경 BHS의 것은 바로 뒤 [ ]안에 넣기로 한다.

화와 인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나’와 ‘곤고한 자들’(עֲנִיִּים 아나빔)(2-4 절), ‘우리’(3절), ‘그들’(5절), ‘이 곤고한 자’(6절), ‘주를 경외하는 자’(7절). 이들 사이에는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을까? ‘곤고한 자’(עֲנִי 아나)는 시편 34편 2절과 6절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2절에서 ‘곤고한 자’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며, 시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곤고한 자들은 시인의 여호와 자랑의 청중이다. 쟁어(E. Zenger)는 그의 주석서에서 곤고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로 이해한다.<sup>19)</sup> ‘עָנָו’(아나브) 또는 ‘עָנִי’(아나)는 일반적으로 가난한자를 나타내지만(레 25:35-38; 신 23:21f; 신 24:6,10-13,17; 겔 18:7; 암 2:8; 욥 29:12-17)<sup>20)</sup> 동시에 ‘고난 당하는 자’, 실존적 상실 속에 있는 자들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다(욥 30:16,27).

3[4]절에서 ‘나’는 여호와와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에 ‘우리’를 초대한다. 여기 3[4]절에서 명령형 복수형태(וְגִּידְתֶּם 각델루)와 동시에 코호타티브 복수형태(וְגִּידְתֶּם 우네롬마)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찬양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으며, 또한 강조하고 있다. 1-2[2-3]절에서 단수형태의 코호타티브(אֲבָרָכָה 아바라카)를 사용한 시인은 3[4]절에서 복수형태 코호타브(וְגִידְתֶּם 우네롬마)를 사용한다. 여기 코호타티브 복수형태를 통해서 설정된 ‘인물들’은 누구일까? 이와 같은 문학적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 시인은 독자에게 어떤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일까? 1-2[2-3]절에서 각각 나타나는 양자의 코호타티브는 동일한 형식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인칭의 변화를 특징으로, 여호와와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 2절에서 시인의 청중으로 나타난 곤고한 자들은 3절에서 코호타티브 복수형태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로 나타나

19) F.-L. Hossfeld/E. Zenger, *Die Psalmen I*, Die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1993), 213.

20) E. S. Gerstenberger, “עָנָו”, *ThWAT* VI (1977), 260.

는 ‘우리’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열려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3절에서 시인과 불특정 다수, ‘우리’의 여호와 찬양의 목적은 2절의 끈고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4[5]절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그의 찬양의 이유를 서술한다. 4절에서 ‘나’는,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나’에게로의 응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찬양의 근거로 제시한다. 완료형태의 동사로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다. 두려움(מִפְּנֵי מֵדֵוָּה 메고라)의 현장 속에서 시인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를 향한 간구였다. 탄원의 언어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우리’를 향하여 교훈을 설파한다. 물론 시인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5[6]절에서 시인은 완료형태의 동사로 ‘그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주를 앙망하였고 그리고 광채를 내었다. 그러므로 장래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의 완료형태의 동사와 한 번의 미완료 형태의 동사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5절에서 ‘그들’은 누구일까? 시편 전반부의 문법적 내용 분석을 통해서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2절의 ‘끈고한 자들’, 동시에 3절에서 코호타티브 복수형태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우리’를 5절의 ‘그들’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까?

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제는 전체가 완료형 시제이다. 6절에서 끈고한 자를 일컫는 명사 앞에 지시 형용사를 위치시켜, 시인은 그와 그의 공동체의 관심 중심에 ‘이(הַ) 끈고한 자(אֵלֶּיךָ 아나)’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끈고한 자’는 누구일까(6절)? 5절에서 시인은 ‘그들’의 하나님 신앙[앙망]과 그 신앙으로 인한 장래 일에 대한 보장을 확신하며 교훈을 설파한 후, 6절에서 자신을 ‘이 끈고한 자’로 설정하고 자

신의 구원의 경험을 증언한다.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변화와 그들의 역할을 정리해보자. 1[2]절을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한 시인은, 그의 청중, 실존적 상실 속에 있는 ‘곤고한 자들’ 앞에 곤고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경험을 노래한다. 여기 2절에 나타나는 ‘곤고한 자들’은 3절에 나타나는 ‘우리’와 5절에 표현 되어 있는 ‘그들’과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시편 34편의 전반부는 곤고한 자들의 고난과 관련하여 특별히 4-7[5-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sup>21)</sup> 시인은 자신의 곤고한 자(אֲנִי, אני)로서 경험과, 고난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경험을 곤고한 자들(אֲנִי, אני)이 수용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7-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7절에 나타나는 ‘여호와 경외’는 시편 전체의 핵심주제이다.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공포하고 있다. ‘여호와 경외’가 새로운 테마로 나타난다. 8절은 이와 달리 명령형으로 구성됨으로 앞 단락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8절에서 시인의 경험은 이제 그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경험에만 머물지 않는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를 의지한 시인의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을 선택한 시인의 행위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이해의 폭이 확장된다. 이는 그의 선하심의 경험이다(시 106:2; 107:2; 118:2). 시인은 두 개의 명령형 동사, (אָמַר, אמר)와 (אָמַר, אמר)를 통해서 그의 청중, 곤고한 자들을 자신의 경험의 현장으로 초대한다.

8절에 이어서 9절 이후 시인은 한층 고조된 언어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청중, ‘성도’(קְדוֹשִׁים, 케도샤브)들로 새롭게 규정되

21) F.-L. Hossfeld/E. Zenger, *윗글*, 210.

고 있다. 9-10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경외’를 성도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절에서 시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젊은 사자의 굶주림과 성도들의 부족함 없는 삶으로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한다.

두 번째 단락(11-22절)의 시작은 ‘자녀들’에게로 향한다. 시편 34편 전체의 중요한 주제, “여호와 경외”와 관련하여, 시인은 11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소개한다. 11절 이후부터는 시인은 ‘여호와 경외’를 ‘의인의 삶’으로 규정한다. 의인은 “생명을 기뻐하는 자”이다(12절).<sup>22)</sup> 시편 34편의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악을 버리고(מָרַקְוּ, מָרַקְוּ 썩르 메라) 거짓을(מִרְמָה מִרְמָה 미르마) 금하며(נִצְרָה נִצְרָה 네조르)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한다(13-14a절).<sup>23)</sup>

시편 34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의인은 고난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삶’은 고난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17절에서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와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은 18절에서부터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며 노래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깨어진자(שָׁבַר שָׁבַר 샤바르)를 가까이 하시고 영(רוּחַ רוּחַ 루아호)이 상한자(דָּכָא דָּכָא 닥카)를 구원하심을 선포한다(18절). 18절에서 의인은 단순히 삶의 역동성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의인의 삶은 많은 아픔을 수반하는 고난의 삶이다(19-20절). 고난과 두려움과 회의 앞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난 가운데 지키시며, 인간의 신체의 기본적인 구조로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22) H-. J. Kraus, 율글, 421: 시편 34편 12절과 비슷한 질문이 이집트 투탕카멘 (Tutenchamos 투텐카모스)시대의 자료에서도 존재했다. 이 질문은 성공적이고 즐거운 삶을 갈망하는 고대 인류시대의 열망이 담긴 질문이다. 이 질문에 관하여 크라우스는 “eudämonistisch” 질문이라고 이해 한다.

23) 시편 34편 전체에서 ‘악’(מָרַקְוּ)은 4회 등장한다(13.14.16.21).

하는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러나 악인은 악으로 인하여 멸망한다. 22절에서 시인은 관심은 ‘여호와와 종들(עַבְדֵי יְהוָה) 아바다브’에게로 전환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지켜온 의인의 삶에 비추어, 시인의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 경외의 삶’을 교훈하며 촉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상호텍스트성으로 본 출애굽기 1:15-22절과 시편 34편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ät)은 모든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텍스트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출발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모든 텍스트는 각각 다른 텍스트와 대화(dialogisch)한다는 사실에 출발하여 상호텍스트성의 이론을 발전시켰다.<sup>24)</sup> 그는 특별히 미하일 바흐틴(Michail Bachtin)의 대화(Dialogizität)의 개념을 수용·비평한다.<sup>25)</sup>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들의 상호 관계를 생각한다. 모든 문학적인 텍스트는 다른 문학적인 텍스트로부터(aus) 만들어지고(weben) 창조된다.<sup>26)</sup>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가’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sup>27)</sup> 어떤 텍스트도 격리된 섬이 될 수 없으며,<sup>28)</sup> 독자는 하나의 관점(Sichtweise)으로만 텍스트를 읽는 것도 아니다. 독자들은 읽기과정

24) Inge Suchsland, *Julia Kristeva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1992), 79.

25) U. Bail, *Gegen das Schweigen klagen. Eine intertextuelle Studie zu Ps 6, Ps 55 und der Erzählung von der Vergewaltigung Tamars* (Gütersloh, 1998), 102.

26) K. Stierle, “Werk und Intertextualität”, Wolf Schmid/Wolf-Dieter Stempel(ed.), *Dialog der Text. Hamburger Kolloquium zur Intertextualität* (Wien: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1983), 7.

27) U. Bail, *위클리*.

28) 참조.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제 62집 (2016.12), 157; 김도형은 그의 연구서에서 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하여 어떤 텍스트도 분리된 단위로 읽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Leseprozess)에서 다른 텍스트들을 기억(Gedächtnis)한다. 이미 읽은 것들을 회상한다. 그리고 이미 경험한 것들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하여 텍스트는 무엇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공간’비유를 통하여 설명해보자. 상호텍스트성은 정확히 공시적(synchroner)층에 닿을 내려 정착할 수 있는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공시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우선 한 텍스트에 의미가 부여된다. 여기서 한 텍스트에 부여되는 의미는 유동적이며, 그 텍스트 자체만의 닫힌 고유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상호텍스트성은 지양한다.”<sup>29)</sup> 텍스트들은 시간상으로 ‘앞으로부터’도 ‘역으로도’ 서로 관련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각각의 작품은 다른 각각의 작품과 연대(ohne Beachtung einer Chronologie)와 무관하게 상관관계를 형성한다.”<sup>30)</sup> 텍스트의 의미가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연결의 방향(Richtung)이 변경될 수 있고, 텍스트들은 서로 대화 속으로 들어간다. 상투적인 혹은 판에 박힌 인식은 파괴될 수 있고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빛을 비출 수 있다.<sup>31)</sup> 반 볼드(van Wolde)는 상호텍스트성은 ‘비교연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32)</sup> 이처럼 상호텍스트성의 연구는 통시적 관점을 넘어서 공시적인 것을 다룬다. 한 텍스트의 다른 텍스트와의 연결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 우선 수용과정(Rezeptionsvorgang)에서 가능하다.<sup>33)</sup>

29) U. Bail, “Vernimm, Gott, mein Gebet. Ps 55 und Gewalt gegen Frauen”, Hedwig Jahnow(ed.), *Feministische Hermeneutik und Erstes Testament. Analysen und Interpretationen*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94), 78

30) U. Bail, *Gegen das Schweigen klagen*, 106.

31) K. Stierle, *윳글*, 10.

32) E. van Wolde, “Trendy Intertextuality?”, Spike Draisma(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ur of Bas van Iersel* (Kampen 1989), 45: ‘후기의 텍스트’(phenotext)에 영향을 주고 ‘후기의 텍스트’(phenotext)를 결정하는 오래된 ‘원래의 텍스트’(Genotext)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이 ‘비교연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3) 다시 말하면 독자가 텍스트 읽기과정(Leseprozess)에서 텍스트 상호간의 연결을 형성한다. U. Bail, *윳글*, 107.

텍스트들 사이의 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접촉점(Anknüpfungspunkte)은 다양하다. 상호텍스트성에서 이정표(Markierungen)는 텍스트들 간의 내용상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도구이다. 브로히(Broich)는 상호텍스트성을 위한 이정표로서, 제목, 소제목, 모토, 서언, 후기, 이름, 활자면(Schriftbild), 양식변화, 구조 유사성 등을 관찰(Anmerkung)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4)</sup> 또한 다른 문학작품의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Auftreten), 핵심 인물 등을 통해서 우리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연결된 텍스트들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정표는 저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텍스트에 기록될 수 있다.<sup>35)</sup> 울리케 바일은 브로히의 이해를 저자에 의해 의도된 관계에 제한되는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이정표들이 “무의식적으로” 텍스트에 기록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또 우선적으로 독자들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이해한다. 울리케 바일은 계속해서 이정표로서 내용상의 접촉점, 전도(Verkehrungen), 모티브, 단어의 유사성, 암시, 인용, 장르, 상황, 의미상·구문상·문법적 평행 그리고 기초를 이루는 코드와 의미체계 등을 제시한다.<sup>36)</sup>

상호텍스트성은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시편 34편의 수직적 피라미드형의(hierarchisch) 대화를 지양하며 오히려 평면적(Fläche) 대화를 지향한다. 출애굽기 1장 15-22절에서 사용된 제재, 구성, 사건의 직접적인 인상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편 34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출애굽기 1장 15-22절의 외곽으로 밀려난 자료를 찾고,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시편 34편 사이에 보이는 틈, 이들 텍스트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 것으로 출발한다. 그러므로 상호텍스트성은

34) Ulrich Broich, "Formen der Markierungen von Intertexten", Ulrich Broich/Manfred Pfister(ed.), *Intertextualität. Formen, Funktion, anglistische Fallstudien*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85) 35.

35) U. Bail, 윗글.

36) U. Bail, 윗글, 107.

두 본문과의 새로운 연결 관계(Knüpfung)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공통 주제를 대화의 중심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거대한 폭력의 한가운데에서 구조적인 악에 저항한 주체적인 여성, 십브라와 부아의 “시편의 언어”들을 찾을 수 있다.

출애굽기 1장과 시편 34편 사이, 두 가지 상호텍스트적 연결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먼저 시편 34편의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대화할 수 있다. 시편 34편의 제목에 나타나는 다윗의 정황과 출애굽기 1장 15-22절의 히브리 산파들의 상황에서 각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두 텍스트를 상호 텍스트성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텍스트에서 우리는 언어적 일치(Übereinstimmung)를 찾을 수 있다. 출애굽기 1장 15-2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경외’의 개념으로 시편 34편과 서로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 경외’는 두 텍스트 사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접착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의 저항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가 시편 34편의 전체 주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34편은 외적 고난과 깊은 내적인 고통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 감사시이지만 탄원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시인의 갈등을 통해 암담한 현실을 인식시키고 여호와경외 사상으로 사회 비판 의식 고취와 함께 현실 개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교훈시이다.<sup>37)</sup>

### (1) 시편 34편의 제목과 히브리 산파들의 정황

본 연구는 두 본문과의 대화를 위하여 실제 역사적 사회-문화적 상황과 신학적 상황을 재수용하고 있는 시편 제목을 연구한다.<sup>38)</sup> 시편 제목

37) H.-J. Kraus, *율글*, 422; Hossfeld/Zenger, *율글*, 24; 함성국, 「시편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451.

38) 울리케 바일은 다말의 고통을 개인 탄원시 6편과 55편을 통해 재구성하면서 시편에 부여된 제목을 통해서 정경비평으로 네러티브텍스트와 시편을 함께 읽는다.

은 원 텍스트가 아니라, 후대 미드라쉬의 해석으로 첨가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첫 번째 주석 작업의 증거로 볼 수 있다.<sup>39)</sup>

여기 시편 제목에서 우리는 시편과 네러티브텍스트의 해석학적 상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편의 네러티브텍스트의 재수용을 논의할 수 있다. 엘리저 슬로모빅은 이를 “결합의 미드라쉬”(connective midrash)라고 말한다.<sup>40)</sup> 브레버드 차일즈는 시편 제목 첨가 현상을 “성서 내부의 주석방법”으로 평가하며 더욱이 “진지한 신학 주석의 모델”로 이해한다.<sup>41)</sup> 차일즈는 이미 시편 제목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미드라쉬가 성서적 전승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를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원-미드라쉬형태”라고 표현하고 있다.<sup>42)</sup>

본 연구는 시편 34편의 제목을 통해서 사무엘 상 21장의 역사적 상황을 제한적으로 재 수용할 수 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אֲבִי־מֶלֶךְ Abi-Melech)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 지은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사는 시편 34편의 제목과 관련하여 네러티브텍스트 사무엘 상 21장 10-15절에 주목한다.<sup>43)</sup> 시편 34편의 2[3]절과 8[9]절, 그리고 사무엘 상 21장 13[14]절에 각각 나타나는 동음동형어의 (homonymy), “t'm” (תִּמ)와 “hthll” (חֲתַל)를 통해서 두 텍스트의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4)</sup> 여기서 출발한 두 본문과의 관련성은 시편 제목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시편의 제목 안에서 다른 텍스트들을

39) K.-H. Bernhardt, *Das Problem der altorientalischen Königsideologie im Alten Testamen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eschichte der Psalmenexegese dargestellt und historisch gewürdigt* (VT.S 8; Leiden: Brill, 1961), 11.

40) Slomovic, *Toward an understanding*, 352.

41) Childs, *Psalm titles*, 148.

42) Childs, *Midrash and the Old Testament*, 58; 마크 푸타토·데이빗 하워드,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류근상·류준호 옮김,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8), 125.

43) Hossfeld/Zenger, *룻글*, 213; H.C. Leupold, *Exposition of the Psalm* (Baker Book House Company, 1969) 278; J.M. Boice, *Psalms: Volume 1 Psalms 1-41*, (Grand Rapids: Baker Book, 1994) 293.

44) Hossfeld/Zenger, *Die Psalmen I*, 213.

재발견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텍스트들의 현존을 표현하고 있는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sup>45)</sup> 시편 34편의 제목에 나타나는 다윗의 상황은 출애굽기 1장 15-22절에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 산파들의 상황과 대화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접촉점으로 가능한가?

본 논문은 시편 34편의 제목, “다윗이 아비멜렉(Abi-Melech)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의 내용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적인 자리매김(Verortung)을 위하여 다윗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현상과 다윗의 일생(Biographie)을 담고 있는 사실에 집중한다.

사무엘 상 21장 10절에서 우리말 성경이 ‘아기스’로 언급하고 있는 가드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 성경은 ‘아기스-멜렉’(אֲכִישׁ מֶלֶךְ Achisch-Melech)으로 쓰고 있다. ‘아기스’는 가드왕의 (이름)이다.<sup>46)</sup> 그리고 시편 34편 제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비멜렉’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에 관한 칭호이다. 블레셋은 다섯개의 도시, 가드(Gath), 가사(Gaza), 에크론(Ekron), 아쉬켈론(ashkelon), 그리고 아스돗(Ashdod)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이었고, ‘아기스-멜렉’(Achisch-Melech) 블레셋 가드의 왕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제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에 관한 칭호이고, 사무엘 상 21장 10-15절의 ‘아기스-멜렉’은 도시 국가 블레셋의 속한 가드왕을 말하므로 이들 둘은 동일한 인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문 비평과 관련된다.<sup>47)</sup> 그러나 우리는 시편 34편의 제목과 관련하여 본문비평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주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시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편의 신학적 배경에 집중한다.

45) U. Bail, 윗글, 100.

46) Hossfeld/Zenger, 윗글.

47) 참조, 마크 푸타토·데이빗 하워드, 윗글, 134.

본 논문의 관심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는 다윗의 상황에 집중한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사무엘 상 21장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멜렉’ 앞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채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사무엘 상 21장 10-15절에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가 그의 생명의 위협 앞에 자신을 지키고자 한 계획된 계책이며 연극이었다.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계획된 계책의 정황은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의 정황으로 연결된다. 다윗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는 계략을 행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 15-22절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를 속이는 계책을 행한다. 여기 다윗과 히브리 산파들의 정황은 동일한 모티브로 텍스트들 사이의 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접착점(Anknüpfungspunkte)으로 작동한다.

## (2) 출애굽기 1:15-22절과 시편 34편의 하나님 경외와 여호와 경외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시편 34편, 두 텍스트에서 우리는 언어적 일치(Übereinstimmung)를 찾을 수 있다. 시편 34편에 나타나는 ‘여호와 경외’에 관한 표현(7,9,11)과 출애굽기 1장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다’라는 표현에서 모토(Motto)의 일치를 찾을 수 있다.<sup>48)</sup> 동시에 ‘두려워하다, 경외하다’(אָרַת, 아레)라는 동사를 통해서 두 텍스트는 언어적 유사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시편 34편, 두 텍스트 사이에서 동일한 동사, ‘경외하다’는 하나님에 관한 서로 다른 표현과 연결된다. 시편 34편의 경우 신명, ‘여호와’(יְהוָה, 아도나이)와 출애굽기 1장 15-22절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אֱלֹהִים, 엘로힘)과 연결된다. 여기서 우리가

48) U. Bail, 윗글, 107.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시편 34편의 ‘여호와 경외’의 모토(Motto)를 상호텍스트성의 접촉점이 되는 이정표(Markierungen)로 이해한다면, 출애굽기 1장 17절과 시편 34편과의 종속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관계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를 통해서 시편 34편과 출애굽기 1장 15-22절 사이의 어떤 사상들, 주제,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출애굽기 1장 15-2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대한 두려움’에 관한 신학적 주제는 상호텍스트성의 이정표로 시편 34편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여기 두 본문에서 각각 나타나는 하나님 경외와 여호와 경외에 관한 중요한 개념은 ‘אֵלֹהִים’(야레)이다. 이는 우리말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를 뜻한다.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의 종교 영역에서 ‘두려움’ 혹은 ‘경외’는 매우 초기 형성된 개념에 해당된다.<sup>49)</sup> ‘אֵלֹהִים’(야레)는 신비롭고도 매혹적인 감정과 동시에 신비롭고도 두려움에 떠는 복합감정이라고 한다.<sup>50)</sup> 물론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심과 같은 부정적 측면에서의 두려움보다는 신뢰와 존경, 경배를 포괄한다.<sup>51)</sup>

서명수는 그의 연구 논문에서 ‘야레’와 관련하여 시편 15편 4절, 22편 24절, 34편 7,9,11절, 115편 11,13절, 118편 4절, 135편 20절에 나타나는 표현(הַיְהוָה אֱלֹהֵינוּ)에 집중한다.<sup>52)</sup>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수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경건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지칭한다고 이해한다.<sup>53)</sup> 신명기와 신명기적 문헌에 나타난 ‘אֵלֹהִים’(야레)의 특징에서 경외의 대상은 항상 ‘여호와’ 또는 ‘여호와 너희/우

49) R.H.Pfeiffer, "The Fear of God", *Israel Exploration Journal* 5 (1995), 41.

50) 서명수, "구약성서의 אֵלֹהִים (야레)의 의미 - 신명기적 문헌과 시편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제 22집 (2006.12), 10-26.

51) M.V.Van Pelt/W.C.Kaiser, Jr., "אֵלֹהִים",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II.*(Grand Rapids: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528.

52) 서명수, 율글, 22: 시편 15:4; 22:24; 115:11,13; 118:4; 135:20.

53) 서명수, 율글, 22.

리 하나님'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 여호와 경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되어 언급된다.<sup>54)</sup>

### (3) 산파들의 시편으로서 시편 34편

상호텍스트성은 어떤 종속성의 베타를 증명하는 것도 영향력의 베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 독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von der Leserinnenperspektive aus) 자발적 창의된 텍스트들의 연결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텍스트를 일방적, 일면으로만(einseitig) 작용하는 텍스트 또는 '인용'으로 파악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울리케 바일은 지적한다.<sup>55)</sup> 만약 두 텍스트가 서로 상호 관련되면, 텍스트들 중 어느 하나도 변화 없이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텍스트들의 연관성을 통해서 의미가 변화되고 중요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텍스트성으로 들여다본 시편 34편과 내러티브텍스트 출애굽기 1장 15-22절의 대화 속에서, 출애굽기 1장 15-22절의 외곽으로 밀려난 자료, 텍스트에 보이는 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우리는 실존적 생존의 위협 속에 저항한 산파들의 고난의 단계를 이해하며, 산파들의 고통의 언어들을 들을 수 있다. '삶'을 도모한 십브라와 부아의 "시편의 언어"를 찾을 수 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들의 저항은 끈고한 삶을 의미한다. 히브리 산파들은 시편 34편의 시인처럼, 끈고한 자들(אֲנִי אֲנִי אֲנִי) 아나빔)의 삶을 경험한다.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우리는 시편 34편을 도움으로 히브리 산파들의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을 읽어낼 수 있다(시 34:4). 여기서 끈고한 자, 산파들은 억압되어 왔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통해서 분출한다. 언어의 상실의 단계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탄원의 언어를 통

54) 권혁승, "여호와 경외로서의 언약", 『구약논단』 제 22집 (2006.12), 30; 참조. 시편 34편의 경우 9절에서 시인은 공동체를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축복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다.

55) U.Bail, 앞글, 154.

해서 자신의 고통을 나타낸다(고난의 단계 II)(시 34:4,5,6,7-9). 그리고 그들의 탄원의 언어는 파라오의 살인 명령으로부터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난당하는 산파들을 변화 시킨다(고난의 단계 III)(시 34:10-22). 고난에 직면한 히브리 산파들은(고난의 단계 I) 고난은 논의 될 수 있고,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하다는 통찰로 고난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갖는다(시 34:4,6). 곤고한 시절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시편 34편 시인의 하나님 경험을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대한 두려움’으로 대치시킨다. 히브리 산파들은 고난의 통찰을 통하여 파라오에 관한 두려움에서(וּמִכּוֹל מְנוּרָוֹתַי) 우믹콜 메구로타; 시 34:4)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간다(출 1:17).

사무엘 상 21장 10-15절에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 하며(וַיִּירָא מֵאָדָם) 야이라 메오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친 체하는 한다(삼상 21:12). 죽음의 사선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배당하는 다윗은 자신을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처럼 출애굽기 1장 15-22절, 살인 명령과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sup>56)</sup> 동시에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한 필사적이다. 파라오의 심문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라고 말한다(출1:19). 마틴 노트는 산파들의 행위 소극적인 항거라고 설명한다.<sup>57)</sup> 그러나 그의 지적과 달리 애굽의 파라오 앞으로 소환되어 심문당하는 산파들은 파라오에 관한 두려움에서(וּמִכּוֹל מְנוּרָוֹתַי) 우믹콜 메구로타; 시 34:4) 하나님 경외에로의 해방을 경

56) L. Schottroff, S.Schroer, M-T. Wacker, *Feministische Exegese:Forschungserträge zur Bibel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152.

57) M. Noth, *유클*, 28.

험한 자들이다.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의 살인 명령과 명령 불복종 사이 발생한 고통의 시간(Phase)을 시편의 언어로 탄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경외’라는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sup>58)</sup> 그들의 하나님 두려움은 파라오의 살인 명령과 상치되며 ‘살림’을 성취한다(출 1:17).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대한 경외’를 통해서 스스로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서의 경험을 갖게 된다. 여기 파라오의 계획의 실패와 나란히 산파들의 행위에 관한 보상이(Lohn) 중요한 주제로 표현되고 있다(15-22절).<sup>59)</sup> 히브리 산파들은 실존적 생존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의 주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나아간다(출 1:21).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의 저항 힘, 하나님 경외’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출발점에 신학적 중심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3.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고난에 관한 신학적인 작업을 고난의 상태뿐만 아니라, 고

58) U. Bail, 윗글, 222; 울리케 바일(Ulrike Bail)은 다윗왕의 딸 ‘다말’의 관한 네러티브텍스트(삼하 13:1-22)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ät)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 탄원시 6편 그리고 55편과 함께 읽는다. 울리케 바일은 참혹한 (성)폭력의 희생자 다말에게 피라미드식 사회 계급 구조가 강요하는 침묵을 또 다른 폭력의 형태로 규정한다. 여기서 울리케 바일은 다말의 저항을 개인 탄원시 6편과 55편의 “시편의 언어”를 통해서 재구성한다(고난의 단계 II). 울리케 바일은 시편 6편을 다말의 시편으로 읽으며 (성)폭력의 희생자 다말의 트라우마를 재조명한다. 그리고 시편 55편의 탄원을 새로운 정체성 구축을 경험하는 다말의 이야기로 읽는다.

시편에서 개인 탄원의 언어는 폭력과 공포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저항본문이다. 탄원과 고발의 문학적 형식을 통하여, 사회 외곽으로 밀려난 폭력의 희생자들을 변호한다. 개인 탄원시편의 시인들은 계급 사회 구조 안에서 실제적으로 자행되는 폭력행위와 폭력 가해자의 언어를 ‘원수들’의 행위로 규정하고 고발하며 폭로한다. 개인 탄원시는 폭력의 주범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정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네러티브텍스트(삼하 13:1-22)와 개인 탄원시와의 대화를 시도한 울리케 바일의 노력은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고통과 트라우마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제적 모델 제안하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비교,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5), 97f.

59) Josef Scharbert, 윗글, 16; 사베르트는 20절 이후는 아마도 편집자의 보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편집자가 파라오의 계획의 실패와 연결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난을 극복해가는 점차적인 단계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시편 34편을 통하여 이를 고찰하였다. 고난 극복은 억압되어 왔던 고통과 두려움이 언어를 통해 분출되면서 시작될 수 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두려움, 침묵하는 고통, 동물적인 울부짖음, 혹은 언어의 상실의 단계에서 “시편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나타낼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출애굽기 1장 15-22절은 시편 34편과 대화할 수 있다. 두 본문의 대화는 히브리산파들의 저항 속에 질게 드리워진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고통의 언어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시편 34편의 “시편의 언어”는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 살인 명령에 대한 공포로 곤고해진 히브리 산파들의 언어이다. 시편 34편은 히브리 산파들의 실제적인 고통을 탄원할 수 있는 창구이며, 동시에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출구로 작동할 수 있다. 파라오의 살인 명령으로 인하여 곤고한 자의 삶을 경험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파라오의 폭력에 저항한다. 히브리 산파들은 고난의 통찰을 통하여 파라오에 관한 두려움에서(시 34:4)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간다(출 1:17). 히브리 산파들의 저항의 힘은 ‘하나님 경외’사상이다. 여기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촉진되어온 저항운동이 이집트 파라오의 폭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경험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후속세대에게 하나님 경외사상을 파라오의 폭력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길로 제시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대장정의 서두에 하나님 경외 사상은 고난의 결정적 해방 요인으로 작동한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으로 태동되고 있다.

#### 4. 참고문헌

www.kci.go.kr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4.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제 62집 (2016.12), 155-191.

권혁승, “여호와 경외로서의 언약”, 「구약논단」 제 22집 (2006.12), 27-44.

서명수, “구약성서의 אָרָא (아레)의 의미 - 신명기적 문헌과 시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 22집 (2006.12), 10-26.

이일례, “고난 받는 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관계성”, 「구약논단」 제 62집 (2016.12), 102-128.

장선철·문승태, 「상담심리학」 (서울: 동문사 2003).

함성국, 「시편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A. 바이저, 「시편(I)」 (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E. 쟁어, 「복수의 하나님?」 (이일례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마크 푸타토·데이빗 하워드 지음,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류근상·류준호 옮김),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8).

필립 뮐러, 「아우슈비츠는 불타는가?」 (김인숙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1).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옮김), (경기도: 돌베개 2012).

프리모 레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옮김), (경기도: 돌베개 2014).

하워드 진·앤서니 아노브, 「미국 민중사를 만든 목소리들」 (황혜성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11).

Bernhardt, Karl-Heinz, *Das Problem der altorientalischen Königsideologie im Alten Testament unter besonderer*

www.kci.go.kr

*Berücksichtigung der Geschichte der Psalmenexegese dargestellt und historisch gewürdigt*, (VT.S 8), (Leiden: Brill, 1961).

Bail, U., *Gegen das Schweigen klagen. Eine intertextuelle Studie zu Ps 6, Ps 55 und der Erzählung von der Vergewaltigung Tamars* (Gütersloh: Chr. Kaiser/Gütersloher Verlagshaus, 1998).

Bail, U., “Vernimm, Gott, mein Gebet. Ps 55 und Gewalt gegen Frauen”, Hedwig Jahnow(ed.), *Feministische Hermeneutik und Erstes Testament. Analysen und Interpretationen*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94), 67-84.

Boice, J. M., *Psalms: Volume 1 Psalms 1-41* (Grand Rapids: Baker Book 1994).

Broich, Ulrich., “Formen der Markierungen von Intertexten”, Ulrich Broich/Manfred Pfister(ed.), *Intertextualität. Formen, Funktion, anglistische Fallstudien*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85) 31-47.

Childs, Brevard S., “Midrash and the Old Testament”, John Reumann(ed.), *Understanding the Sacred Text. Essays in Honor of Morton S. Enslin on the Hebrew Bible and Christian Beginnings* (Valley Forge: Judson Press, 1972), 45-59.

Childs, Brevard 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St* 16(1971), 137-150.

Childs, Brevard S., *The Book of Exod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5).

Freedman; Willoughby, “עֲבָרֵי” *ThWAT V* (1986), 1039-1056.

- Gerstenberger, E. S., “עָנָה”, *ThWAT VI* (1977), 247-270.
- Hossfeld, F.-L./Zenger E., *Die Psalmen I* (Die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1993).
- Houtman, Cornelis., *Exodu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I; Kampen: Kok Publishing, 1993).
- Jacobson, Rolf A., ‘*Many are Saying*’: *The Function of Direct Discourse in the Hebrew Psalter* (Bloomsbury: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Kraus, H. J., *Psalmen 1: Psalm 1-59* (BK XV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 Langston, Scott M., *Exodus through the centuries* (Maiden, MA, Oxford, UK, and Carlton, Australia: Blackwell Publishing, 2006).
- Larsson, Göran., *Bound for freedom: the Book of Exodu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Peabody, MA: Hendrickson, 1999).
- Leupold, H.C., *Exposition of the Psalm* (Nashville: Baker Book House Company, 1969).
- Millard, M., *Die Komposition des Psalters. Ein formgeschichtlicher Ansatz* (FAT 9; Tübingen: Mohr, 1994).
- Müllner, I., *Gewalt im Hause Davids, Die Erzählung von Tamar und Amnon (2 Sam 13,1-12)* (HBS 13; Freiburg: Herder, 1997).
- Pelt, M.V.van /Kaiser, W.C. Jr., “יָרָא”,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II* (1997), 527-533.
- Pfeiffer, R.H., “The Fear of God”, *Israel Exploration Journal* 5

(1995), 41-45.

Scharbert, Josef., *Exodus* (Die neue Echter-Bibel :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mit der Einheitsübersetzung; Würzburg: Echter, 1989).

Schottroff, L./Schroer, S./Wacker, M-T., *Feministische Exegese: Forschungserträge zur Bibel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Schroer, Silvia, “Auf dem Weg zu einer feministischen Rekonstruktion der Geschichte Israels”, Luise Schottroff, Silvia Schroer, and Marie-Theres Wacker(eds.), *Feministische Exegese. Forschungserträge zur Bibel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81-172.

Seifer, E., *Tochter und Vater im Ersten Testment. Eine ideologiekritische Untersuchung zur Verfügungsgewalt von Vätern über ihre Töcht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7).

Slomovic, Elieser.,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AW* 91,3 (1979) 350-380.

Sölle, Dorothee., *Leiden* (Stuttgart: Kreuz Verlag 1984).

Stierle, K., “Werk und Intertextualität”, Wolf Schnid/Wolf-Dieter Stempel(eds.), *Dialog der Texte. Hamburger Kolloquium zur Intertextualität* (Wien: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1983), 7-26.

Suchsland, Inge., *Julia Kristeva zur Einführung* (Hamburg: Ju-

www.kci.go.kr

nius, 1992).

Trible, P.,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Wolde, van E., "Trendy Intertextuality?", Spike Draisma(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ur of Bas van Iersel* (Kampen: Kok Publishing, 1989), 43-49.

Wolff, H. W., *The Vitality of Old Testament Traditio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John Knox Press, 1982).

검색어

상호텍스트성

히브리산파

고난

시편의 언어

하나님 경외 사상

## Affinity of the resistance of the Hebrew midwives and “the words of psalm”

- From the viewpoint of Intertextuality: Ex 1:15-22 and Ps 34 -

Lee, Il-rye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Ruhr- Bochum University Dr. theol.

Exodus 1: 15-22, can be dialogically intertwined with Psalm 34 through intertextuality. Through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texts we can recognize the deep shadow of hardship due to their protest against the pharaoh and hear the words of the Hebrew midwives' agony. The “language of Psalms” in Psalm 34 are their language of fear and suffering caused by the pharaoh's order to kill all male children.

Psalm 34 can be a window, through which the Hebrew midwives can lament before God, and also a door for liberation and freedom from their hardship and fear. The suffering Hebrew Midwives due to the pharaoh's killing order remember God, who hears their outcry and

[www.kci.go.kr](http://www.kci.go.kr)

delivers them from hardships, and protest against the violence of the pharaoh. Through the discernment into their suffering, the Hebrew midwives overcome and change the fear of the pharaoh into the fear of God (Exod 1:17). The power of the Hebrew midwives' protest comes from their fear of god.

The protest which is expedited by the Hebrew midwives establishes itself as an empirical paradigm that can brake the violence of the pharaoh, so that they propose the fear of God as the way to end the violence of the pharaoh. In the beginning of Israel's great long march of the Exodus, the fear of God works as the crucial factor for the liberation from hardships. At the same time it is the very beginning of the identity of the Israelite people.

## Keywords

Intertextuality

Hebrew midwives

suffering

language of the Psalm

fear of God

- 투고일: 2017년 9월 30일
- 심사일: 2017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30일

[www.kci.go.kr](http://www.kci.go.kr)